

# 알링턴 시민들 발길 잡은 불교 힐링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도시 알링턴(Arlington)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으로 명상센터와 불교사원 2곳이 주목받고 있다.

스타 텔레그램(Star-Telegram)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삶의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티벳불교계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와 대만불교계 후웅다오(Huong Dao) 사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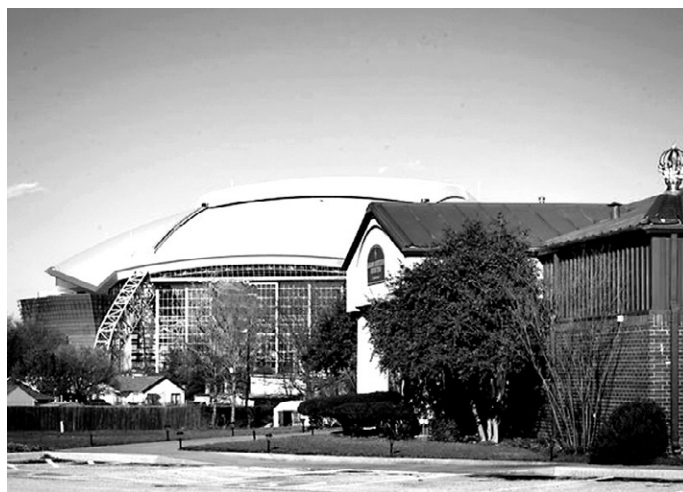
최근 모친을 떠나보낸 데비 필립스(Debbie Phillips·46)는 카우보이스 스타디움(Cowboys Stadium) 인근에 있는 카담파 명상센터를 매주 토·일요일 방문해, 이곳에서 제공하는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데비 필립스는 "바쁜 일상으로 주말에만 명상센터를 방문하고 있지만, 혼란스런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며 "올 여름 휴가는 카담파 명상센터의 집중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링턴의 카담파 명상센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주 주말(토·일요일) 오전에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데비 필립스 씨가 참여하는 명상 프로그램에는 13명의 지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게세 켈상 가초(Geshe Kelsang Gyatso·명상센터 설립자) 스님이 이 설립한 카담파 명상센터에는 '도심 속 불교'라는 환경에 걸맞게 다양한 명상·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서점·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종교인으로서 영혼의 길을 가는 방법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는 켈상 초고(Kelsang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 전경. 그 뒤로 알링턴의 랜드마크인 카우보이스 스타디움(Cowboys Stadium)이 보인다. (사진 왼쪽) 카담파(Kadampa) 명상센터 내부. 카담파 명상센터의 설립자 게세 켈상 가초(Geshe Kelsang Gyatso)의 영정과 함께 알링턴 시민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켈상 쟈파(Gen Kelsang Jampa·영정 오른쪽) 스님과 켈상 초고(Kelsang Chogo·영정 뒤쪽) 스님이 보인다. (사진 오른쪽)

## 美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일고 있는 '명상 바람'

카담파 명상센터, 후웅다오 사원... 도시민의 마음 치유한다

Chogo·명상센터장) 스님은 "비단 카담파 명상센터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 어디에서나 영혼의 길을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불교계 후웅 다오(Huong Dao) 사원 역시 알링턴에서 주목받는 사원이다.

스타 텔레그램은 "2011년 10월 개원하면서 3미터에 이르는 대리석 불상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의 이목을 잡아왔던 이곳이 최근 명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시대 미국인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는 후웅 다오 사원의 난(Nhan) 스님은 "우리

역·학습·감정 등과 연관된 뇌 영역과 명상의 상호 관계를 밝혔다. 이는 '알링턴의 시민들이 명상에 주목하듯, 영국의 학계와 공학계에서도 명상을 연구 주제로 한 업적이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경활영(Neuroimaging) 분야에서는 명상 상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기

이와 관련해 스타 텔레그램은 <정신병리학 연구(Psychiatry Research)>를 인용, "알링턴의 시민들이 명상에 주목하듯, 영국의 학계와 공학계에서도 명상을 연구 주제로 한 업적이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담파 명상센터의 켈상 쟈파(Gen Kelsang Jampa) 스님은 "사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모두 불자일 필요는 없다"며 "불교가 미국의 지역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흥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의 정규수업에 너투신 부처님"

영국 브라이튼의 통합학교 라돈 칼리지(Rydon Community College)에서 불교문화 관련 교과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매체인 카운티 타임즈(County Times)는 7일자 보도에서 "중등부 종교 관련 교과목 중에서 '불교문화'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매학기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학기에서 불교문화와 수공 실용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비해 8명 증가했다. 카운티 타임즈는 청소년들이 불교문화 관련 교과목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불교미술에 대한 소양을 쌓고, 태극권을 배우며, 율회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교안하고 시연하는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이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시진핑, 티베트 정책에 비판적"

류상 "50년 역사불때 낙관 어려워"

티베트 망명정부가 시진핑 총서기 중심의 중국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티베트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것 같지 않다고 회의를 표시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류상 상하이 사장은 "새 정부가 티베트 정책에 개혁을 단행해 평화와 화합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기대가 실현될 거라고 낙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정치 협상에 진전이 없었지만, 시진핑 티베트 편이라며 장기간 투쟁에 들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대학의 중국 헌법 전문가인 시진핑 총서기의 새 정부는 경제



시진핑 총서기

정책, 부패척결, 미국과의 협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티베트 정책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티베트 5개 비정부기구는 오는 10일 티베트 분리독립 요구 시위가 거행된 지난 2008년을 기념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 중국에 가짜 승려 활개... 시주금 갈취

오대산 내 사찰 2곳 폐쇄, 남성 6명 체포

중국 당국이 승려행세를 하며 관광객에게 보시금을 받은 남성을 체포하고 사찰 두 곳을 폐쇄했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2월 18일(현지시간) 승려로 위장한 남성 6명이 대규모 보시금을 갈취해 오대산(五臺山)에서 체포됐다.

중국 4대 불교명산중 하나인 오대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며 이곳에는 50개의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두 사찰이 폐쇄되면서 48곳만 남게 됐다.

이번에 폐쇄 조치된 두 사찰은 오대산 행정국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보도에 따르면 두 사찰은 가짜 승려들을 고용해 참배객들을 속여 값비싼 향을 구입하게 하고 불교의식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산 행정국 관리자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오대산내 사찰과 상점들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중국내에서 벌어지는 가짜승려의 활개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시금을 갈취하는 것은 그리 큰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2012년 4월에는 승려 두 명이 지하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호텔에 여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레코드 차이나는 승려들이 복경 시내를 돌아다니며 명품과 돈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며 각각 여성 한명씩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결과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 나면서 즉각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은 가짜 승려 행세를 한 이유에 대해 "단지 승려 코스프레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분을 속인 죄로 추궁을 받았다. 당시 중국 불교계는 "불교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 밖에 2010년 중국 북부의 지방공무

원과 150명의 가짜승려 집단이 대치하는 상황이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된 적도 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중국 내몽고 자치구인 바오터우(包頭)에서 체포된 31명의 가짜 승려에 대해 나머지 승려들이 석방을 요구한 것. 이들은 내몽고 경찰서를 기습해 전화부스를 공격하고 버스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차량 추격전을 벌이고, 중국 당국은 이러한 난동에 대처해 직원 500명을 경찰서로 보냈다.

가디언은 "이 가짜 스님 집단이 가난한 이주노동자 및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은 소작농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조직은 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 출신 스님

## 승복입고 지하철서 술마시기도

임금체불 앙심 품고 가짜승려 조직

중국 가짜승려 태국·홍콩에도 진출

행세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가짜 승려의 행태는 태국을 비롯한 불교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08년에는 중국에서 '승려 신분증'을 위조한 뒤 태국으로 들어가 고가로 염주나 부적을 팔거나 구걸 등 각종 사기 행각을 자행한 것. '가짜 승려' 들은 태국 대도시의 변화기를 혼자 유유히 다니는 승려가 있는가 하면 노인이나 어린이를 끼워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장애인 승려로 가장해 노승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동승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행인들의 동정을 얻고 다녔다.

가짜 승려의 기승으로 2011년에는 말레이시아 불교단체 청정승가수호센터(약칭 SSPC)가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의 불교 단체들이 금품을 모금하는 위장승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63@hyunbul.com



시민에게 염주를 팔고있는 중국의 가짜 승려

출처=온바오닷컴

#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 의사를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가가 온누리에 찬탄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송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께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전추를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송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니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 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약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손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수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빠르고 시큰 거러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을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쪽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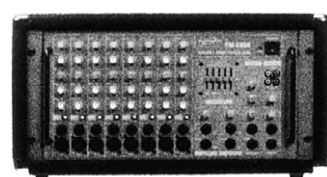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 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해(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피어디스크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해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